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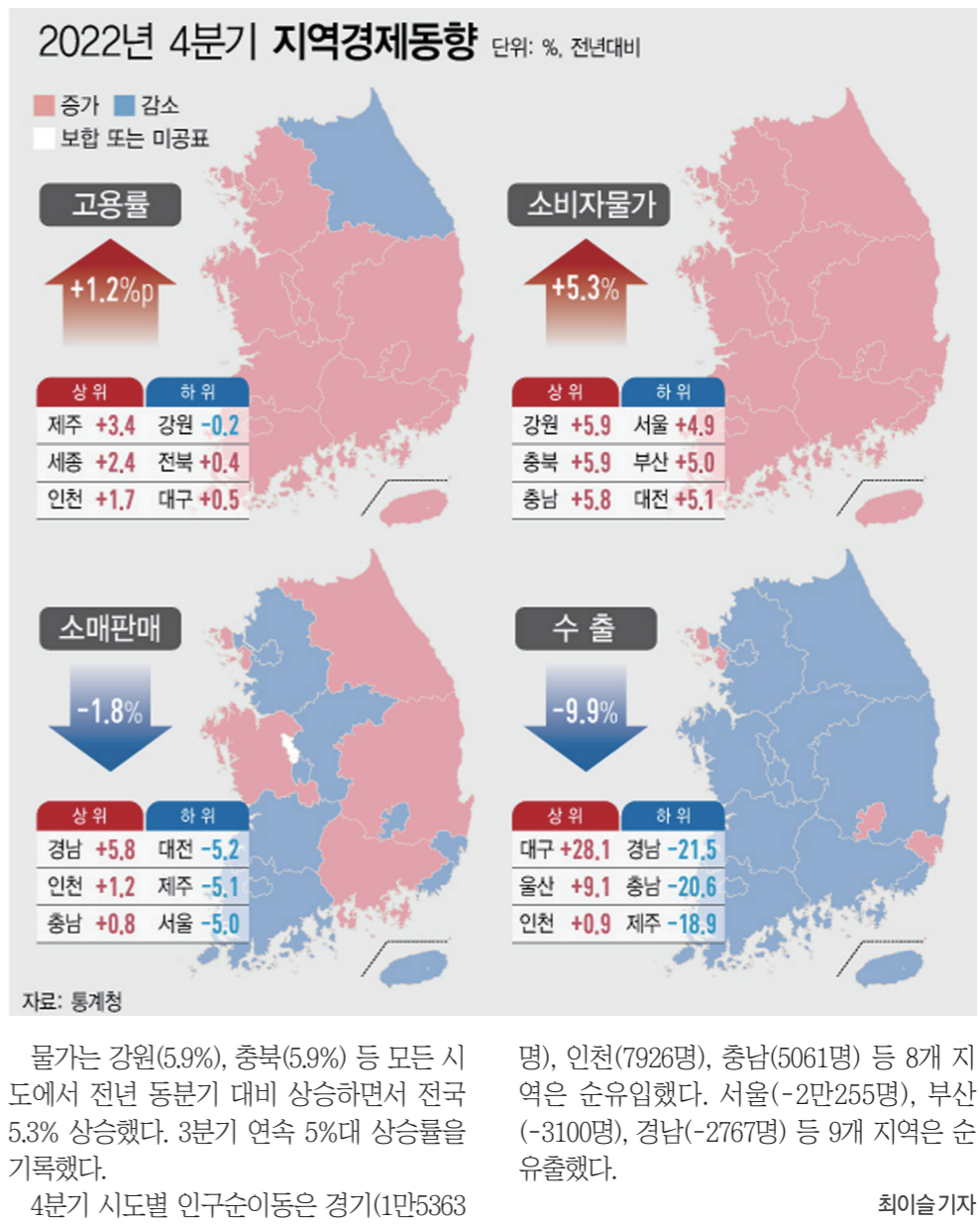
작년 지역경제 '반등'...서비스생산 2007년 이후 최대폭 증가

통계청, 2022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서비스생산 4.8% 상승...2007년 이후 최대폭 수출 증가율 6.1% 증가 그치자 광공업 1.4% ↑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지난해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회복 흐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 특히 서비스업 증가세가 2007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4분기 들어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수출과 소매판매가 감소폭을 키우면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4.8% 증가해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모든 지역에서 증가한 가운데 제주(8.6%), 인천(6.8%), 경기(5.8%)는 숙박·음식점, 운수·창고·보건의료 등의 생산이 늘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경남(2.3%), 인천(2.2%) 등 3개 시도에서만 증가세를 보여 전국 0.2% 증가에 그쳤다. 2021년 14개 시도에서 증가세를 보였던 데서 쪼그라들었다. 광주(-2.4%), 충북(-1.9%) 등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소비자물가는 강원(6.0%), 제주(5.9%)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광공업생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1.4% 증가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21년(7.1%)에 비해 크게 줄었다.

부산(10.1%), 경기(6.7%) 등 12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대전(-5.3%), 경북(-3.6%) 등 5개 시도는 감소했다. 수출 둔화가 광공업 생산 증가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021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445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7% 증가한 바 있다. 작년 연간 수출도 6839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전국 증가율은 6.1%에 그쳤다. 대구(34.1%), 울산(21.4%) 등 12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 제주(-13.9%), 경남(-11.7%) 등 5개 시도는 감소했다. 고용률은 전국 62.1%로, 20대, 30대 등의 고용률이 올라 전년 대비 1.6%포인트(p) 상승했다. 경기(2.8%p), 제주(2.5%p), 경북(1.9%p) 등 모든 시도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시도별 인구순이동은 경기(4만3882명), 인천(2만8101명), 충남(1만4314명) 등 7개 지역은 순유입했다. 서울(-3만5340명), 경남(-1만8547명), 부산(-1만3562명) 등 10개 지역은 순유출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 동향이다. 고용과 서비스업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악화

하면서 올해 경기둔화를 예고했다. 광공업생산은 메모리반도체,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전국 -4.1%로 10분기 만에 감소전환했다. 부산(14.0%), 인천(6.3%), 경남(5.0%)은 기타 운송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반면 서울(-11.8%), 충북(-11.7%), 전남(-9.0%)은 기타 기계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수출이 전국적으로 -9.9%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대구(28.1%), 울산(9.1%), 인천(0.9%)은 기타 유기·무기화합물,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어 증가했으나, 경남(-21.5%), 충남(-20.6%), 제주(-18.9%)는 선박,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부품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문소매업, 무점포 소매 등의 판매가 줄어 -1.8%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했다. 특히 감소폭은 2분기와 3분기 각각 -0.2%를 기록한 것에 비해 4분기 들어 커졌다. 경남(5.8%), 인천(1.2%), 충남(0.8%)은 승용차·연료소매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대전(-5.2%), 제주(-5.1%), 서울(-5.0%)은 전문소매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인천(5.7%), 서울(4.8%) 등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전국 3.9%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전국 1.2%p 상승하며 7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제주(3.4%p), 세종(2.4%p) 등 16개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승한 반면 강원(-0.2%p)은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서도 강세... 전기·하이브리드차 판매 강화

양사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량 31만대 기록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친환경차 시장에서도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량은 총 31만3136대로 전체 판매량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현대차는 전기차에서, 기아는 하이브리드에서 강세를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의 최근 3년간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0년 9만579대(11.5%), 2021년 11만9366대(16.4%), 2022년 13만8458대(20.1%)를 집계했다. 이 중 전기차 판매량은 2020년 1만8612대에서 2022년 7만372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2020년 6만6181대,

2021년 6만8416대가 판매됐다 지난해에는 5만7922대가 판매되며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소차는 2020년 5786대, 2021년 8502대, 2022년 1만164대를 기록하며 매해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7만984대였던 친환경차 판매량은 2021년 10만9741대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7만4678대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판매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12.9%에서 2022년 32.3%로 상승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2020년 6만2048대(87.4%), 2021년 8만743대(73.6%), 2022년 12만5259대(71.4%)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

를 보였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기아는 기아는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친환경차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의 글로벌 판매를 본격화하고, 고성능 N 브랜드 첫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5 N이 출시할 계획이다. 기아는 하이브리드차 수요를 중심으로 EV6 등 전기차 판매를 함께 늘리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성국 기아 IR 담당 상무는 지난달 27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를 지난해 16만대에서 57% 증가한 25만대로 잡았다"며 "올해 기아의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헤라, 아이&립 메이크업 신제품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럭셔리 뷰티 브랜드 헤라는 다가오는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메이크업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4가지 컬러로 구성된 아이새도 '퀵드 아이 컬러'와 립 틴트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의 새로운 컬러가 출시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퀵드 아이 컬러'는 활용도

가 높고 자연스러운 4가지 컬러를 한 제품에 담아낸 아이새도 팔레트로 총 3가지 조합을 선보인다. 헤라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아모레퍼시픽 연구소가 함께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최적의 4색 조합을 담아냈다. 기존 헤라 제품 대비 15% 이상 작아진 입자가 눈가에 부드럽게 밀착되어 지속력과 발색력이 뛰어나다. 컬러별로 제형을 다르게 설계해 하나의 팔레트로도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는 지난해 출시된 벨벳 제형의 립 틴트로 편안한 사용감과 뛰어난 지속력으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는 기존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맨 얼굴에 발라도 부담 없을 만큼 자연스러우면서도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3가지 컬러를 추가로 선보인다. 뉴스

"봄맞이 신혼침실 제격"...에이스침대, 신제품 2종 출시

모던한 분위기 '프레토'·천연무늬목 '아르노 II'



에이스침대가 봄철 웨딩 시즌을 맞아 신제품 '프레토'와 '아르노- II 오크내추럴'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태리어로 '순수한'이라는 뜻의 프레토는 간결하고 모던한 느낌의 침대다. 더블 헤드보드의 전면 쿠션감이 편안한 침실 분위기를 완성한다. 1169mm의 높이로 어떠한 매트리스와도 잘 어울린다. 이 제품은 패브릭과 가죽 소재의 믹스매치와 섬세한 스티치 마감은 세련된 느낌을 준다. 패브릭은 기본 발수 코팅 처리로 관리도 쉽다. 프레토는 T타입 형태의 설계로 공간 활용도와 시각적인 안정감을 높였다. T타입 내부는 매트리스 전용 스프링과 파운데이션 전용 스프링이 이중으로 받쳐주는 에이스침대의 '투 매트리스' 공법을 적용했다. 아르노- II 오크내추럴은 올해 TV CF 제품이다. 백조의 날개 형상에서 모티브를 따온 우아한 곡선의 헤드보드와 특징이다. 천연 무늬목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렸고, 프레임 전면의 램프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한다. 아르노- II 오크내추럴은 발수 코팅 처리로 생활 관리와 오염 부담을 줄였다. 헤드보드 양쪽에 USB 포트를 설치했다. 투 매트리스 공법을 적용해 호텔 침실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서선욱기자



하나투어, 봄 맞아 '우리 함께 봄 여행' 기획

하나투어는 봄을 맞아 동반자별 여행지 추천과 소풍 지원금을 제공하는 '우리 함께 봄 여행' 기획전을 20일부터 진행했다. 이번 기획전은 예약 고객에게 봄 소풍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다. 하나투어와 신세계 인터내셔널 공식몰 에스이빌리지(S.I.VILLAGE)가 최대 25만 원 상당의 쿠폰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에스이빌리지 10만 원 쿠폰팩 ▲하나투어 10만 마일리지 할인 쿠폰에 더해 여행 상품 구매 고객 중 추첨을 거쳐 40명에게 ▲에스이빌리지 5만 e포인트를 제공한

다. 하나투어는 테마별 대표 상품으로 ▲광·사이판 4·5·6일 ▲방콕 자유여행 5일 ▲오사카 3·4일 ▲서유럽 3국 8·9·10일 등을 준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봄을 맞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여행을 제안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에스이빌리지와 함께 준비한 스타일리시한 봄 여행을 위한 소풍 기회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